

해양수산부, EPP소재 친환경부표 추가 허용은 역대 최악의 정책(4)

- 친환경부표 시행지침 개정 배경 오류 -

글 김영근/작가, (주)씨라이프 대표

시행 양식산업과-3143 (2020-06-23) 접수 03300(접수일자:2020.06.23.)

제목 2020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

1. 친환경부표의 품질과 성능이 지속 개선되고 보다 폭넓게 양식업 현장에 보급이 되도록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수협중앙회와 품질인증 업무 대행기관에서는 개정된 시행지침을 어업인, 부표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시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효기간 연장 : 친환경부표 시험결과 유효기간 2년→3년

나. 지원대상 품목 확대 : 품질성능 검사기준을 충족하고 양식어업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품 공급 확대

다. 인증 신청기간 앞당김 : 부표 교체시기에 맞도록 시기를 조정

* (당초) 신청(2월) → 심사(3월) → 인증 및 단가계약체결(4월)

(변경) 신청(전년도 11월) → 심사(전년도 12월) → 인증 및 단가계약체결(1월) 라.

시행일 : 2020. 7. 1.

붙임: (200619)2020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2020.7.1시행) 1부.

2020년 6월 24일에 우리나라 양식용 친환경부표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이다. 굳이 구차하게 공문 내용을 게시한 것은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해당 공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침에서 변화된 가장 큰 내용은 그동안 제한되었던 피복 epp 부표를 굴양식용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한 내용이다. 품질성능 검사기준을 충족하고 양식어업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품 공급 확대가 그 배경이다.

일단, EPP 부표의 친환경부표 추가에 허용 추진은 그 배경 자체에 오류가 있다. 자연과 바다가 아닌, 인간의 사용 편리가 추가 허용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용성의 높고 낮음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어야 하고, 바다여야 한다. 즉, 부표를 사용하는 어민들이 기준이 아니라 그 부표의 친환경성과 리싸리클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미세플라스틱 덩어리 epp 부표가 현장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굴 양식용으로 추가 허용될 배경은 결코 아니다. 분명한 오류다.

사용자의 어업 현장 수용성 측면에서도 양식어업 현장에서 수용성이 가장 좋은 제품은 수십년 동안 사용해온 스티로폼 부표이다. 값싸고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또한 품질성능 검사기준에 대하여 살펴봐도 스티로폼을 EPP와 같은 비율로 발포 성형하여 피복하였을 때 epp와 같이 지침의 품질성능 검사기준을 충족한다. 친환경성은 어떤가. 앞서 거론하였듯이 모든 플라스틱은 발포되는 순간 그 물성이 약화되고 급격히 산화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다. 수용성과 품질성능 모두에서 미세플라스틱 덩어리 EPP 부표의 친환경부표 추가 허용의 결정적 배경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으로 epp 부표가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되었는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5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본다.

*“또한, 친환경부표의 품질 개선을 위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잘 부서지지 않고 재활용이 쉬우며 자체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높인 것으로, 4개월간 실제 양식장에서 성능시험(2019. 11.~2020. 4.)을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소재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서 거론된 신제품이 epp라면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서 epp 부표가 굴양식용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된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보도자료 내용에서처럼 해양수산부에서 신제품을 개발하였고, 성능시험도 마쳤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명확한 배경이 드러난다.

이러한 배경은 2020년 2월 6일 통영에서 있었던 열린소통포럼에서 양식산업과 이상길 과장님께서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개발했고, 시험하고, 지침 개정을 통하여 하반기부터 보급하겠다고 공표하신 내용과 동일하다. 즉, 준비된 절차, 과정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 열린소통포럼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자. 필자는 당시 열린소통포럼에 참석하였다. 필자가 소속되어있는 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였다. 직접 관련이 있는 포럼이기에 심취하여 동참 할 수가 있었다.

통영 포럼은 '양식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유추하여 보면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3차례 진행한 포럼이 epp 부표를 굴 양식용 친환경부표로 추가 허용한 배경의 근간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얼마만큼 부실했는지에 대하여는 이후 다시 거론하겠다.

2020년 2차 친환경부표품질인증 신청도 끝났다. EPP 부표의 추가 허용이라는 해양수산부 역대 최악의 정책으로 개정된 지침에 의거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매우 큰 우려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고 시험하고 보급하겠다고 지침까지 개정한 epp 그 신제품을 어떤 형태로 보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다.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보급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보급 될 것인가. 만일 어느 특정한 업체에서 보급하게 된다면 해양수산부와 그 특정 업체의 관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그 크기 무한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개발했고, 시험했고, 지침까지 개정하여 보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치된 그 EPP 신제품 부표를 만일 특정한 업체에서 공급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명을 해주야 한다.

그 관계성과 사유가 해명 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개발하고 시험하고 보급하고 지침개정 하고 기자들 모아놓고 홍보까지 해준 것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업체에서 이미 개발 된 제품 주워다가 포럼 등의 절차 걸쳐 특정 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특정 업체의 용역을 수행 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정리하면, 특정한 업체에서 EPP 신제품 부표를 공급하게 될 경우, 관계성과 사유와 절차가 명료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 2020년도 친환경부표 품질인증이 해양수산부장관님으로부터 승인된 것은 2020년 5월 15일이다. 헌데, 수협중앙회와 업체와의 계약은 3월 중에 진행 되고, 4월 10일 완료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친환경부표품질인증서도 없이 업

체들은 수협중앙회와 계약하고, 어민들에게 보급을 진행한 것이다.

하나의 오류는 전부를 오류로 평가하게 한다. EPP 소재부표, 그 미세플라스틱 덩어리를 신제품이라 이름 붙여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부표보급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또한 이러한 오류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좀더 진지하였으면 좋겠다.

어업용 부표의 친환경화, 그것은 ‘안됨’에서 시작한다. 바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위하여 ‘안됨’을 단호하고 일관되게 유지시키고 계도하는 것이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의 책무라 여겨진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의 건투를 빈다.

김영근(hole-man@hanmail.net)